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권재환** · 이성주***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4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62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중요한 요인이며,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간의 위계구조를 고려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학교생활적응,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 본 연구는 2012학년도 동신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 동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동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rahab@ds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환경으로(Minard, 2002), 학교 생활의 적응 여부는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이다(우성희, 2011; Rutter, 1985). 특히 사회인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인 대학생 시기의 학교 생활적응 여부는 사회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대학생 시기는 발달과정 상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로, 이 변환의 과정에서 대학생은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에 부딪힌다. 대학 입학과 함께 대학생은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수동적이고 통제적인 타율적 행동 규범과는 다른 자율적 사고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 받는다.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몰라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고, 갑자기 변화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갈등을 느끼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괴리와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초중고에 집중되어 있는데, 초기 연구들은 주로 학습자의 학업 결과에 초점을 두었다(문은식, 2001). 뒤이어 학교 생활적응의 하위 요소들(Baker & Siryk, 1984; Birch & Ladd, 1996)이나 관련 변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변인을 다룬 연구, 사회·환경적 변인을 다룬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변인을 다룬 연구 결과를 보면 학습자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학습동기 수준 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김일태, 허남진, 2004; 문은식, 2002; 이명숙, 이규민, 2009; 조은정, 2012; Ames, 1992; Birch & Ladd, 1996; Pintrich, 2001; Roeser, Wolf & Strobel, 2001). 사회·환경적 변인을 다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만할수록,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고 교사나 친구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김영린, 이기학, 2011; 문은식, 2001; 장영애, 박정희, 2008; 이지미, 김현주, 2011; 조은정, 2012; Kurder & Sinclair, 1988;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Berndt, 1999; Harter, 1996; Ladd, 1990; Wentzel, 1994, 1997).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학교생활적응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숙정, 2011; 이영민, 임정연, 2011; 정여주, 홍성례, 2012; 한기홍, 최은구, 안권순, 2006)이나 학습이나 교수 관련 등의 학교환경적 특성(이영민, 임정연, 2011; 이인경, 김장희, 2011; 정은이, 박용한, 2008; 최임숙, 2007) 또는 대학 정책수립에 필요한 대학생활적응(김건희, 황은희, 2012; 이영민, 이수영, 2010; 최지연, 2012)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사회·환경적 변인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의 중요한 변인으로 등장하는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대학생 때가 발달단계상 후기 청소년기 또는 성인초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하정희, 정은선, 송수민, 2010).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이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Furstenberg, Rumbaut & Settersten, 2005; Shanahan, 2000), 부모의 양육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끝나지 않는다(Gitelson & McDermott, 2006). 성인 자녀가 원가족에 심리적·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기간 동안 부모-자녀관계는 혼란을 겪는 등(곽윤영, 정문자, 2010)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자녀관계나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Gitelson & McDermott, 2006).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양육태도 관련 연구들은 부모양육태도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이현숙, 조한익, 2004), 진로태도성숙(우영지, 이기학, 2007),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곽윤영, 정문자, 2010), 자기에 성향(홍영미, 성현란, 2012) 등 주로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학생 시기가 이전의 시기에 비해 부모의 영향력을 덜 받는 시기 이기는 하지만, 부모양육행동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아동·청소년기와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사회·환경적 변인들 중 부모양육태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부모양육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요인 중의 하나가 자기통제력이다. 자기통제(self-control)란 스스로 상황적인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을 말한다(이경남, 2000). 자기통제력은 가정환경에서 양육자에 의한 타율적 통제를 통해 발달하는데, 자녀는 부모의 양육에 의해 자기통제력을 형성하고 이는 교사 및 또래관계, 학업성취 등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통제력이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혜림, 2009). 대학의 교육환경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스스로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더 많은 자율성과 책임을 요구한다(정은이, 박용한, 2008). 대학생들은 이전의 학교생활과 달리 갑자기 다양한 환경을 접하게 되고, 개인의 소양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기회가 많아지며, 종교, 가치관, 인생관, 정치적 견해 그리고 사회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자극들은 대학생에게 여러 가지를 배우는 기회를 수 없이 제공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성은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엄습함으로써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한다(오명화, 권재환, 유근창, 이준철, 박희현, 2013).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인 자기통제력은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은 직·간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도 교수·학습활동 못지않게 생활지도와 학교생활적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의 가정환경변인을 이해하고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도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초·중등학생들에 비해 더 자율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통제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고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과업에 맞춰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부모양육태도가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을 예언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매개자 역할을 하는지 알아봄으로써 대학생 자녀의 부모교육과 대학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및 학교생활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가정은 개인이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환경으로 특히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성장 및 발달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인간의 생애초기부터 가장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개인의 성격형성이나 지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성장기 이후에도 지속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발달과 과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연구되어왔고,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환경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통제력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낮은 자기통제력은 훈육이나 훈련이 부족한 결과에서 비롯되며 그 근원은 잘못된 자녀양육이다 (Gottfredson & Hirschi, 1990). 즉, 자기통제력이 낮다는 것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사회화 과정에서 자기통제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Baumrind(1991)는 가장 효과적인 부모의 양육방법의 특징으로, 규칙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강화, 자신의 자녀가 자기신뢰 및 자기통제력을 적절하게 발달시킬 것이라는 기대, 자녀의 의견과 감정표현의 권유, 자녀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안녕에 대한 성실한 보호가 따르는 온정과 승인의 표현 등 네 가지 차원을 들고 있다. 그는 이 네 가지 차원의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의 질이 자녀의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능력을 예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온정적이고 애정적이며 격려와 지지를 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충동과 욕구를 통제하여 환경적 요구에 적합하게 행동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며(Silverman & Ragusa, 1990), 반면 아동에게 물리적인 개입과 위협으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부모는 자녀를 더 반항적으로 행동하게 한다(Crockenberg & Litman, 1990).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해림(2009)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수록 아동의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어머니의 성취적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합리적 양육태도가 설명력이 크다고 하였다. 백혜정과 황혜정(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에 착한 자기통제에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부모감독이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애정적이고 수용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통제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기통제력의 관계를 본 김용현(2012)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통제력보다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에 대한 경험이 분노표출에 더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학교적응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개인과 학교 환경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한다(Bierman,

1994). 개인에게 있어서 환경적인 영향은 개인을 성숙시킬 수도 있고, 개인의 능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는 요인이다.

학교적응은 개인과 가족, 학교, 지역사회라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기본은 가족 환경이고 그 중에서도 부모-자녀 관계가 가장 기초가 된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다양하다. 예컨대, 가정에서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적 기회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지적 발달과 학업적 성공을 증진시킬 수 있고, 또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적 활동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자녀의 인지적 발달과 학업성취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도 있으며, 적절한 양육실천으로 자녀의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Wentzel, 1994).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적 대처, 관여, 자기조절, 지각된 통제 등의 측면에서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한다(Ryan, Stiller & Lynch, 1994).

부모양육태도는 학자마다 분류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부모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Symonds(1949)는 부모-자녀관계를 ‘거부-수용’과 ‘지배-복종’이라는 2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Schaefer(1965)는 ‘애정-적대’와 자율-통제라는 2개의 축으로 부모양육태도를 제시하였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Schaefer의 양육태도 이론에 근거하여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분류한 4개의 차원을 하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애정-적대 차원에서 애정적 태도란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며 칭찬이나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고, 적대적 태도는 자녀의 일에 무관심하며 비난을 하는 등 자녀의 단점을 자주 지적하는 태도를 말한다. 자율-통제 차원에서 자율적 태도란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책임지는 습관을 권장하는 것이고, 통제적 태도는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조하는 태도를 말한다. 성취-비성취 차원에서 성취적 태도란 부지런하고 끈기 있게 과업을 수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고, 비성취적 태도란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많이 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합리-비합리 차원에서 합리적 태도란 자녀에게 있어서 일의 동기와 근거를 중요시하는 것을 말하고, 비합리적 태도는 이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과를 보다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자율적이고 민주적 일 때 자녀는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곽수란, 2006; 장영애, 박정희, 2008; 조은정, 2012; Amato & Fowler, 2002). 반면에 부모양육태도가 방임적이거나 적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곽수란, 2006; 권용준, 김영희, 2011; Jackson, Choi & Bentler, 200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희정(2001)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관계에서 경험하는 가족원간의 역동이 대학생활적응의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학교적응력은 높아지고,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자기통제력에 대하여 상황을 검토하고 사려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며, 자기점검, 자기평가 및 자기강화의 자기통제과정을 통하여 행동을 제지하거나 선택하게 된다고 본다. 즉, 자기통제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내적 동기로 볼 수 있는데, 교육을 통해 자기통제전략을 습득하는 것은 개인에게 자신의 생활에 독립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자기통제력은 스스로 상황적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하도록 일시적인 충동이나 만족을 제지하고 인내하는 능력으로써 행동 문제의 중요한 완화요인이기도 하다(김원희, 이동훈, 2010).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특성인 공격성, 충동성,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중에서 문제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자기통제력을 들고 있다(김두섭, 민수홍, 1996; 김현숙, 1998). 자기통제력은 유아기에 출현하여 지적 성숙과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점점 발달하며, 아동기를 거쳐 청년기에도 지속적으로 발달한다(Elias & Berk, 1997). 이렇게 형성된 자기통제력은 학교, 직장, 결혼 등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모든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이혜림, 2009).

자기통제가 잘된 아동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충동적 행동은 억제하고 인내하여 사려있게 행동하므로 높은 학업성취와 원만한 또래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성향은 청년기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적절한 자기통제의 발달은 성인

기의 성공적인 직업적 성취 및 바람직한 삶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Newman, Caspi, Moffit & Silva, 1997). 반면 자기통제가 떨어지는 아동은 인지적 과제해결이 산만하여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며 대인관계에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선희, 김정연, 1999; Feldman & Wentzel, 1990). 또한 국내 경험적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이 높은 학생이 자기통제력이 낮은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지훈, 2004; 백혜정, 2007; 이혜림, 200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Gibbs와 Giever(1995)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수업에 결석, 부정행위, 음주 등의 횟수가 많아진다고 하였으며, 국내의 최낙현(2009)의 연구에서도 크고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인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및 학교생활적응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자녀의 학교적응 정도가 달라진다(이혜림,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기통제력이 학교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원희와 이동훈(2010)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기통제력은 학교부적응 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부모의 부부갈등보다 자기통제력이 학교부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정(2012)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고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양육방식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자아탄력성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Gibbs(1998)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일탈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향보다 자기통제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진희(2012)는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밝혔다. 즉,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은 개인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의지력을 길러주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및 학교생활적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혜림(2009)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도 조은정(2012)의 연구에서처럼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자기통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학교적응에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통제력에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형성된 자기통제력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두 변인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매개자 역할을 하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한 4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62명이다. 설문조사는 교양 수업시간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실시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무성의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자료 46부를 제외한 31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100명(31.6%), 여학생이 216명(68.4%)이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26명(39.9%), 2학년 92명(29.1%), 3학년 68명(21.5%), 4학년 30명(9.5%)이다.

2. 측정도구

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부모의 양

육태도 지각검사를 김여진(2009)이 수정·보완한 3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를 대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상담심리학 전공 교수 1인과 교육학 전공 교수 1인에게 문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또한 대학생 5인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문항내용을 최종 수정하였다.

이 검사는 부모양육태도를 애정-적대 10문항, 자율-통제 8문항, 성취-비성취 10문항, 합리-비합리 10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대체로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부모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여진(2009)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신뢰도 계수는 .91이었다.

2) 자기통제력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력 검사는 Tangney, Baumeister and Boone(2004)이 개발한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Brief Self-Control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대체로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였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80이었다.

3) 학교생활적응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김택호와 김재환(2004)이 만든 ‘학교생활적응 척도’ 50문항을 성선진(2010)이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한 4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3개의 차원(학업적응 18문항, 사회적응 17문항, 환경/일반적응 9문항)의 3개 하위변인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대체로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선진(2010)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학업적응 .54~.82, 사회적응 .61~.86, 환경/일반

적응 .67~.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학업적응 .91, 사회적응 .85, 환경/일반적응 .89였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3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정하였다. 각 변인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고,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enter 방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는 3단계의 매개효과 검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사이의 경로계수와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회귀계수가 통제될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어야 한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경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여 Z값을 구하고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부모양육태도는 전체값을 포함한 모든 하위요인이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은 부모양육태도를 비교적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위요인 중 애정-적대($M=3.78$, $SD=.60$)가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기통제력도 $3.13(SD=.41)$ 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학교생활적응도 모든 하위요인에서 3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보였고 사회적응($M=3.59$, $SD=.50$)이 가장 높았다.

표 1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측정변인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부모양육태도	애정-적대	3.78	.60
	자율-통제	3.59	.55
	성취-비성취	3.56	.51
	합리-비합리	3.41	.63
	전체	3.58	.50
자기통제력		3.13	.41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3.12	.60
	사회적응	3.59	.50
	일반적응	3.30	.73
	전체	3.29	.44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및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349(p<.01)$ 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부모양육태도와 학

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총점 간 .450($p<.01$)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총점 간 .589($p<.01$)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450,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589로서 서영석(2010), 조선미(2011) 등의 설명에서처럼 준거변인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자기통제력이 매개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표 2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부모양육태도	1.00		
자기통제력	.349**	1.00	
학교생활적응	.450**	.589**	1.00

* $p<.05$, ** $p<.01$, *** $p<.001$

2. 부모양육태도가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자기통제력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R^2)의 값이 .122 ($F=43.119$, $p<.001$)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의 12.2%가 부모양육태도에 의해 설명되고 있고,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결정계수(R^2)의 값이 .202 ($F=78.402$, $p<.001$)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적응의 20.2%가 부모양육태도에 의해 설명되고 있고,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영향력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E</i>	β	<i>t</i>
자기통제력	(상수)	2.103	.158		13.284***
	부모양육태도	.288	.044	.349	6.566***
$R^2 = .122, \text{adj}R^2 = .119, F = 43.119^{***}$					
학교생활적응	(상수)	1.865	.162		11.480***
	부모양육태도	.398	.045	.450	8.855***
$R^2 = .202, \text{adj}R^2 = .200, F = 78.402^{***}$					

* $p < .05$, ** $p < .01$, *** $p < .001$

3.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대학생의 자기통제력은 학교생활적응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자기통제력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정계수(R^2)의 값이 .347($F=164.914, p<.001$)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적응의 34.7%가 자기통제력에 의해 설명되고 있고,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영향력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E</i>	β	<i>t</i>
학교생활적응	(상수)	1.306	.156		8.396***
	자기통제력	.633	.049	.589	12.842***
$R^2 = .347, \text{adj}R^2 = .344, F = 164.914^{***}$					

* $p < .05$, ** $p < .01$, *** $p < .001$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을 독립변수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본 3단계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beta=.281$)이 2단계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beta=.450$)보다 감소하였다. 2단계에서도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했기 때문에 완전매개가 아닌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1	자기통제력	부모양육태도	.288	.044	.349	6.566***
2	학교생활적응	부모양육태도	.398	.045	.450	8.855***
3	학교생활적응	부모양육태도	.248	.041	.281	6.017***
		자기통제력	.525	.050	.489	10.475***

* $p<.05$, ** $p<.01$, *** $p<.001$

매개변인을 회귀모형에 첨가한 후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가 이전보다 작아졌거나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서영석, 2010). 매개효과와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위 식에서 a 는 ‘부모양육태도→자기통제력’의 비표준화계수의 값, b 는 자기통제력→학교생활적응의 비표준화계수의 값을 의미한다. SE 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는데 SEa 는 a 의 표준오차 값, SEb 는 b 의 표준오차 값을 의미한다. 표 4에 제시된 a 와 b 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5.555$,

$p < .001$). 이 결과를 통하여 자기통제력은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유의도

경로	Z
부모양육태도 → 자기통제력 → 학교생활적응	5.555***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부모양육태도가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을 예언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설명력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는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대학생 자녀의 부모교육과 대학에서의 학생지도의 방향과 생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실시하였다.

그동안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주로 초·중·고등학교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책임이 더 많이 요구되는 대학생 대상으로 하여 부모양육태도가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 집단에서도 적응의 중요한 요인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보다 자율성이 요구되는 대학생 집단에게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얼마나 영향을 주며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는지 밝히는 것은 주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는 것과 함께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자기통제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근원은 잘못된 자녀양육이라고 한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연구,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초·중·고등학교의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혜림(2009)의 연구 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감독이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백혜정과 황

혜정(2006)의 연구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 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인간의 생애초기나 아동기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자율적이고 민주적일 때 자녀는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곽수란, 2006; 장영애, 박정희, 2008; 유희정, 2001; 조은정, 2012; Amato & Fowler, 2002).

셋째, 자기통제력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통제력이 높은 학생이 자기통제력이 낮은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밝힌 강지훈(2004), 백혜정(2007), 이혜림(2009) 등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낮은 자기통제력은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대인관계에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김선희와 김경연(1999), Feldman과 Wentzel(1990) 등의 연구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일상적인 모든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이혜림, 2009), 자기통제력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충동적 행동은 억제하고 인내하여 사려있게 행동하므로 높은 학업성취와 원만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Newman, Caspi, Moffit and Silva(1997) 등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통제력은 대학생 집단에서도 학업적응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지만 자기통제력이 높으면 학교생활에 더욱 잘 적응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혜림(200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밝힌 조은정(2012)의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한 가지 차이점은 이혜림(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자기통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학교생활적응에 간접효과만 준 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효과도 있었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대학생은 학업적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훨씬 높은 자율성을 요구

받기 때문에 자율적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교육 및 대학교육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다른 학교급과 달리 자율적 사고와 책임 있는 행동을 더 요구받는 대학생에게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둘째, 자기통제력은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요인이었다.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본 연구 결과에서도 자기통제력이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자기점검, 자기평가 및 자기강화 통한 자기통제력을 증진시켜주는 비정규 교육과정이나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간의 위계구조를 고려하여 대학생 자녀의 부모교육에 이를 반영한 교육이 고려해야한다. 왜냐하면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적응에도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업적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적응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밝혀진 만큼 대학생 자녀교육에서도 가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향후 이에 대한 더욱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4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양과목의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조사대상의 성별 분포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 편포된 관계로 대표성 있는 표집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 수로 성차나 학년별 차이 등 배경적 특성에 따른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다.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사용하였으나, 후속연구를 위해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교육현장에서 보다 의미 있게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집단의 결과와 초·중등학생 집단을 비교분석해보는 연구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강지훈 (2004).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곽윤영, 정문자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121-141.
- 권용준, 김영희 (2011).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자아조절이 게임 과몰입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6), 99-121.
- 김건희, 황은희 (2012). 간호학과 편입생의 첫 학기 대학생활 체험: 대학생활의 적응 및 위기 극복. **한국위기관리논집**, 8(5), 123-142.
- 김두섭, 민수홍 (1996). **개인의 자기 통제력이 범죄 억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김선희, 김경연 (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김여진 (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린, 이기학 (201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독립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2(4), 125-143.
- 김용현 (201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기통제력, 분노표현방식의 관계**.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원희, 이동훈 (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및 자기 통제력이 학교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4), 1767-1782.
- 김일태, 허남진 (2004). 비학업자아개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분석. **열린교육연구**, 12(1), 75-96.
- 김진희 (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택호, 김재환 (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 효과. **한국**

-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65-490.
- 김현숙 (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은식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변인의 탐색적 고찰. **교육발전논총**, 23(1), 153-167.
- 박성연, 강지훈 (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백혜정 (2007).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애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57-373.
- 백혜정, 황혜정 (2006).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성선진 (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관계 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명화, 권재환, 유근창, 이중철, 박희현 (2013). 대학생의 학생지도 및 상담 경험 분석. **동신논총**, 22, 215-230.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 10-32.
- 옥경희, 김미혜, 천희영 (2002). 조절력과 부정적 정서 및 문제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61-68.
- 우성희 (2011).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영지, 이기학 (2007).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23-1039.

- 유희정 (2001). 부모의 이혼과 부모간의 갈등이 대학생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3(2), 57-78.
- 윤은중, 김희수 (2005). 청소년의 생활양식 유형과 정신건강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7(2), 105-121.
- 이경남 (2000). 아동의 자기통제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7(1), 99-120.
- 이경남 (2004). 아동의 개인 및 가족변인과 교실의 심리사회적 환경변인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6), 833-845.
- 이명숙, 이규민 (2009).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자아개념, 학교적응 및 학교부적응 행동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0(1), 167-193.
- 이숙정 (2011).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2), 235-253.
- 이영민, 이수영 (2010). 특수목적고등학교 졸업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 분석. **교육종합연구**, 8(1), 97-119.
- 이영민, 임정연 (2011). 대학생의 개인특성 및 학교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결정요인 분석. **평생교육·HRD연구**, 7(4), 89-118.
- 이인경, 김장희 (2011).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수 멘토링 교육과정의 효과. **상담학연구**, 12(2), 673-691.
- 이지미, 김현주 (2011). 청소년이 지각한 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탄력성 및 학교 적응간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8(4), 97-120.
- 이현숙, 조한익 (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 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89-105.
- 이혜림 (2009).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통제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정화, 전종설 (201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이 남,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8), 169-190.
- 장신재, 양혜원 (2007). 부모-자녀관계,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8(2), 5-29.
- 장영애, 박정희 (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

-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3(2), 69-85.
- 정여주, 홍성례 (2012).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삶의 질 관계 연구: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239-257.
- 정은이, 박용한 (2008). 대학생들의 교수신뢰와 학습동기 및 대학 생활적응과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9(1), 73-93.
- 조선미 (2011). 과학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인지적 자기조절학습전략의 매개효과.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1(6), 958-969.
- 조은정 (2012). 이동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1), 35-50.
- 최낙현 (2009). **대학생의 자기표현과 자기통제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임숙 (2007). 대학생의 학교적응 행동, 학업성취도와 성역할 정체감 및 학습양식의 관계. **인문학연구**, 34(2), 547-573.
- 최지연 (2012).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 준비와 대학 적응 사례 연구. **청소년학연구**, 19(8), 23-53.
- 하정희, 정은선, 송수민 (2010).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역할. **상담학연구**, 11(4), 1375-1392.
- 한기홍, 최은구, 안권순 (2006). 인터넷 중독과 충동성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3(6), 410-429.
- 홍영미, 성현란 (2012). 대학생의 기질 및 부모양육행동이 외현적, 내재적 자기에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4), 35-48.
- Amato, P. R., & Fowler, F. (2002). Parenting practices, child adjustment, and family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3), 703-716.
- Ames, C. (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261-27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mrind, D. (1991). The permanence of change and the impermanence of stability. *Psychosocial Developmental psychology*, 11, 33.
- Berndt, T. J. (1999). Friends' influence on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Educational Psychologist*, 34, 15-28.
- Bierman, K. L. (1994). School adjustment. In R. J. Corsini (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John Wiley & Sons.
- Birch, S. H., & Ladd, G. W. (1996).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school environment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The role of teachers and peers. In K. R. Wentzel, & J. Juvonen (Eds.), *Social motivation: Understand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pp.199-22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ckenberg, S., & Litman, C. (1990). Autonomy as competence in 2-year-olds: Maternal correlates of child defiance, compliance, and self-asser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61-971.
- Elias, C. L., & Berk, L. E. (1997). *Child development: Study guide for*(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Estevez, E., Musitu, G., & Herrero, J. (2005). The influence of violent behavior and victimization at school on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 of parents and teachers. *Family Therapy*, 32(3), 143-156.
- Feldman, S. S., & Wentzel, H. R. (1990). Relations among family interaction patterns, classroom self-restrai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readolescent boy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4), 813-819.
- Furstenberg Jr., F. F., Rumbaut, R. G., & Settersten Jr., R. A. (2005).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Emerging themes and new directions. In R. A. Settersten Jr., F. F. Furstenberg Jr., & R. G. Rumbaut (Eds.),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ibbs, J. J. (1998). Parental management and self-control: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1), 40-70.

Gibbs, J. J., & Giever, D. (1995). Self-control and its manifesta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Justice quarterly*, 12(2), 231.

Gitelson, I. B., & McDermott, D. (2006). Parents and their young adult children: Transitions to adulthood. *Child Welfare*, 85(5), 853-866.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Harter, S. (1996). Teacher and classmate influence on scholastic motivation, self-esteem, and level of voice in adolescents. In J. Juvonen, & K. Wentzel (Eds.), *Social motivation: Understand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pp. 11-4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rrero, J., Estevez, E., & Musitu, G. (2006). The relationships of adolescent school-related deviant behaviour and victimization with psychological distress: Testing a general model of the mediational role of parents and teachers across groups of gender and age. *Journal of adolescence*, 29(5), 671-690.

Jackson, A. P., Choi, J. K., & Bentler, P. M. (2009). Parenting efficacy and the early school adjustment of poor and near-poor black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30(10), 1339-1355.

Kurder, L. A., & Sinclair, R. J. (1988). Relation of eighth graders' family structure, gender, and family environment with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1), 90-94.

Ladd, G. W. (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1, 1081-1100.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Newman, D. L., Caspi, A., Moffit, T. E., & Silva, P. A. (1997). Antecedents of adult inter personal functioning: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ge 3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06-217.
- Pintrich, D. A. (2001). The role of motivation in promoting and sustaining self-regulated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1, 459-470.
- Roeser, R. W., Eccles, J. S., & Sameroff, A. J. (1998). Academic and emotional functioning in early adolescence: Longitudinal relations, patterns, and prediction by experience in middle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2), 321-352.
- Roeser, R. W., van der Wolf, K., & Strobel, K. R. (2001).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emotional and school functioning during early adolescence: Preliminary findings from Dutch and American sampl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9, 111-139.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Ryan, R. M., Stiller, J., & Lynch, J. H. (1994). Representation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 Schaefer, E. S. (1965).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 83-104.
- Shanahan, M. J. (2000). Pathways to adulthood in changing societies: Variability and mechanisms in life course perspective. *Annual Reviews of Sociology*, 26, 667-692.
- Silverman, I. W., & Ragusa, D. M. (1990). Child and maternal correlates of impulse control in 24 month-old children: Correction genetics.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6(4), 435-473.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Callege Columbia University.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 Wentzel, K. R. (1994). Relations of social goal pursuit to social acceptance, classroom behavior,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 173-182.
- Wentzel, K. R. (1997). Student motivation in middle school: The role of perceived pedagogical car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411-419.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on self-control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Kwon, Jaehwan* · Lee, Sungj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evance among parents' perceived rearing attitude, self-control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nd to better underst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school adjustment.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data was gathered through self-reported expression questionnaires. The subjects were 362 college students in the Gwangju and Jeonnam area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re positive parents' rearing attitude was, the higher the level of self-control. Second, the more positive parents' rearing attitude was, the higher the level of school adjustment. Third, the higher the level of self-control was, the higher school adjustment. Fourth, there was partly mediated effect of self-control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school adjustment. This result suggests the importance of self-control in promoting the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college student, school adjustment, parents' rearing attitude, self-control

투고일 : 2013. 3. 6, 심사일 : 2013. 5. 6, 심사완료일 : 2013. 5. 14

* Dongshin University